



제 8회 광주비엔날레 D-50

광주미술, 세계의 시선 사로잡는다



강봉규 작 '가족'



임남진 작 '취생몽사'

“광주 미술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11월7일)에 대거 참여해 ‘예향 광주’의 예술 혼을 뽐낸다.

이번 전시에는 사진작가 강봉규씨를 비롯한 임남진·박태규·정다운·김용진·박성완·강선호(이상 회화)씨 등 7명이 참여한다.

당초 지난 5월 참여작가 발표 당시, 광주 작가는 단 1명뿐이었지만 전시 개막 50여 일을 앞두고 최근 추가로 6명을 선정했다.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남도 예술을 국제 화단에 소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남도 풍경을 담은 사진과 5·18 희생자의 혼을 위로하는 탕화, 영화 간판 연작, 관람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준 뒤 나눠주는 ‘초상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가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만인보’인 만큼, 이들 작가들은 호남의 삶이 만어나는 풍경, 과거 모습 그리고 현재가 담긴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게 된다.

사라져가는 농촌의 고적한 풍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는 강봉규씨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허물어져 가는 농촌의 낡은 집을 포착한 ‘가족’을 전시한다. 손 대면 금방이

강봉규·임남진·박태규 등 지역작가 7명 참여

남도의 풍경 사진·영화 간판 연작 등 선보여

관람객들 초상화 그려 나눠주는 프로젝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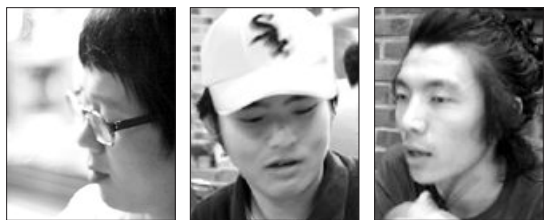


강봉규씨

임남진씨

박태규씨

정다운씨



김용진씨

박성완씨

강선호씨

라도 바스르릴 듯 허술한 방안에 가족들의 손때 묻은 세간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모습을 통해 호남의 과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감로탕화(甘露帳畫·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낼 때 봉안하는 불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임남진씨는 탕화연작 2점과 풍속화 2점을 함께 출품한다.

태아의 혼을 달래는 ‘태아령’과 5·18광주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5월 감노탕’을 통해 한국 탕화에 담긴 독특한 맛을 선사한다.

한국 회화의 한 축인 탕화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전시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화가들의 단골 술집인 광주 예술의 거리 ‘영흥식당’과 동구 광산동의 카페 ‘포플레이’의 풍경을 담은 풍속도를 통해 광주의 현재의 모습도 함께 선보인다.

광주의 마지막 영화 간판장이 박태규씨가 전시하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 14점의 ‘추억’ 연작도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나운규, 신성일씨 등 지난 50~80년대 은막의 스타들을 합판을 오려서 만든 소형 영화 간판 안에 담아냈다. 또 ‘영자의 전성시대’ ‘남남북녀’ ‘풍운아’ ‘피아골’ 등 추억 속 영화의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도 눈에 띈다.

지역의 20대 작가들이 선보이게 될 ‘초상화 프로젝트’도 눈여겨 볼 전시이다.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 20대 작가들인 정다운·김용진·박성완·강선호씨는 ‘잉여그림’(overplus)이라는 팀을 꾸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초상화를 화폭에 담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관람객들의 얼굴 자체가 작품의 소재가 되고, 초상화를 그리고 나눠주는 행위 자체를 예술로 승화했다. 젊은 작가들의 특색 튀는 발상과 관람객들이 모델로 참여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이색 전시이다.

강선호씨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정작 자신의 아름다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미술과 인문학’ 여섯번째 강좌

이주현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내일 상록전시관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공동주최하는 ‘현대미술과 인문학’ 여섯 번째 강좌가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미술평론가 이주현(49·사진)씨가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씨는 14일 강좌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는 차별화의 욕구가 크고, 차별화를 이뤄내는



방법은 창의력과 창조력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창의력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전제하고 미술사에서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한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창조와 행복, 몰입, 기원 등 창의력의 성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씨는 “예술가들은 파괴와 전복을 통해 창의적인 가치를 찾게 된다”며 “창의력이 충만한 예술가들

은 블루오션으로 나간 대항해자들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며 양현재 단 이사를 맡고 있는 이씨는 ‘지식의 미술관’ ‘이주현의 아트카페’ 등 다양한 미술관련 서적을 펴냈다.

한편 ‘현대미술과 인문학’강좌는 폭넓은 인문학적 배경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키우는 연중강좌로 매달 셋째주 금요일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150명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

예총 ‘광주시민예술대학’ 개강

김종두 화백·연극인 최종원 등 강의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최하는 ‘2010 광주시민예술대학’이 13일 개강 강좌를 시작으로 4달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사진)

올해로 제18기를 맞는 광주시민예술대학은 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시민들에게 문화 향기를 전하는 행사로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금남로 5가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사업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13일 개강식과 함께 3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 날 강좌에서는 손광은(시인·전남대 명예교수)씨가 ‘한국 현대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시민예술대학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강사는 김승일(조선대 명예교수), 류재현(전남대 교수), 최종원(연극인), 선종백(광주보건대 평생교육원), 이대휴(광주국악협회장), 송순섭(광주시립국극단장), 이돈홍(학정미술연구원 원장), 최영화(광주연극협회장), 김원중(가수), 김종두(광주일보 시사문화)씨 등이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한아 가야금독주회

20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김한아 가야금독주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다양한 창작곡들을 들려준다.

황병기가 산조를 바탕으로 작곡한 ‘남도 환상곡’, 젊은 작곡가 원일이 12줄 가야금을 위해 작곡한 ‘길소리’, 노천명의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한 이성천 곡 ‘오월의 노래’, 눈 내리는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오르게 하는 이상구 곡 ‘설무’ 등이 주 레퍼토리다.

장고 장단은 이용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씨가 맡는다.

전남대 국악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한밭 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읽고싶은 전자책 1위

법정스님 ‘무소유’

인터넷서점 이용자들이 전자책으로 가장 읽고싶어 하는 책은 고인이 된 법정 스님의 무소유로 나타났다.

인터넷서점 INTC 도서부문의 지난 4~5월 홈페이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정 스님의 에세이 ‘무소유’가 458표를 얻어 읽고 싶은 전자책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자들이 가장 읽고 싶은 분야는 소설로, 전체 응답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비소설(15%), 자기계발서(7%), 경제경영 서적(4%) 등의 순이었다.

소설 중에서는 신작 베스트셀러 외에도 수 년 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토지, 삼국지, 태백산맥 등 스테디셀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연합뉴스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람 하우스 거제리문화기행에 있습니다.

간식부터 내일 아침까지 다양한 한정식과 정육을 세차리듬으로 맛있게 즐기세요. 풍성한 요리와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운 모임을 즐기세요.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람 하우스.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람 하우스.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람 하우스.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람 하우스 ☎ 525-2111

movieholic 현대시네마

MEGABOX

CINUS

다양한 영화 상영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춘 최첨단 영화관. 현대시네마, MEGABOX, CINUS. 현대시네마, MEGABOX, CINUS. 현대시네마, MEGABOX, CINUS.